

독립기념관

09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2019 September Vol.379



하얗게 바랜 머리카락 사이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과
주름이 깊게 패인 입술로 외치는
대한독립만세의 뜨거운 함성



©GIF
QR코드를 통해 움직이는
표지와 e-book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독립기념관 9월의 테마는
'노인'입니다
그들은 청년과 다름없는
맑고 강인한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www.i815.or.kr

월간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11-8370008-000001-06
ISSN 1227-5883
등록일 1988년 3월 19일·천안라00001

발행일 2019년 9월 1일 발행처 독립기념관
발행인 이준식 편집인 신용관

편집 신하윤(sunny@i815.or.kr)
편집위원 이봉근·고명재·구병준·노지은
박성섭·염진일·이선화·이정희·정경민·허미애

기획·디자인·제작
(주)디자인소호(02-514-5164)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독립기념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비매물)

그날의 얼굴

04

우리가 만난 얼굴

나라를 지킨 백발의 독립운동가

06

역사를 만든 사람

임시정부를 이끈 큰 어른,
이동녕

08

어느 독립운동가의 초상

독립을 위한 투쟁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12

史소한 이야기

조선의 마지막 선비들



그날의 이야기

16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어느 독립운동가의
일그러진 초상

18

이달의 독립운동가

일본군과 맞서 싸운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22

자료로 읽는 역사

백 년 전 한국인의
국경 넘나들기

26

한국인의 터전

1917년 박용만의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의 참가와
외교활동

28

우리의 오늘 세계의 그날

원산총파업과 대공황

오늘의 시선

32

이 땅의 숨결

가을 앞에서 노래하는
음유시인을 만나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36

세상으로 열린 창

남촌을 걷다

38

나라사랑 역사탐방기

바로 알고 가르쳐서
실천하게 하는 힘이 교육이다

42

기념관 소풍

우리 역사 탐방!
나도 우리 역사를 지키고
나아갈래요



44

일상 돋보기

꽃사랑,
느티나무의 아련한 추억

46

기념관 소식

나라를 지킨 백발의

독립운동가

“

내가 죽는다고 조금도 어찌지 말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 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언제든지 눈을 감으면 쾌활하고 용감히 살려는 전국 방방곡곡의 청년들이 눈앞에 선하다.

- 강우규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

”

독립운동가 중에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내 나라가 힘을 잃고 소러져가는 과정을 모두 목격한 그들은 '독립'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을 따라 나이 든다 하여도 독립을 바라는 마음은 늙지 않기예, 백발의 독립운동가들은 청년 못지않은 기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를 지탱할 나의 후손에게 조국의 진정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마지막 불꽃을 피워냈습니다.





자강과 개화만이 이 나라가 살길이다

이동녕은 전형적인 양반 가문 출신으로, 그의 부친 이병옥은 지방관을 역임했다. 5세 때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익혔는데, 주변에서 신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1892년, 24세가 되던 해에는 진사 시험에 합격하여 선비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는 세계적인 제국주의 시대에 휘말려 급변하는 중이었다. 전통적인 출세의 계단이었던 과거제도는 폐지되고 개화사상이 들어왔다. 양반 중에는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이 망했다며 개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이동녕은 달랐다.

이동녕은 부친과 함께 원산으로 가서 육영사업을 하며 신학문을 전파했고, 28세 때는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개화와 민권을 추구하는 구국운동에 참여했다.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동회 활동에서도 앞에 나서서 투쟁했고, 그러다 투옥되는 고난도 겪었다. 7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옥한 이동녕은 『제국신문』에 「민족자강의 방도」라는 사설을 실으며 언론인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본격적인 민족주의 사상을 세워나갔다.

“

자강을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는 강대국에 침략당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을 면하려면 먼저 세계의 발전에 발맞추어 개화를 힘써 실천해야 한다.

”

이동녕은 이상재, 전덕기 등과 함께 YMCA기독교운동을 전개했다. 일제의 침략이 심해지자 청년회를 결성하여 항일운동을 벌였고, 을사늑약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다시 투옥되었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일제의 압제로 인해 활동에 한계가 왔음을 깨닫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이민족 전제의 학대와 억압을 해탈하고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이동녕이 처음 만주로 나간 때는 1906년, 38세 때였다. 북간도 용정촌으로 이주한 그는 이상설 등의 동지와 함께 최초의 항일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했다. 서전서숙은 이상설이 헤이그에 밀사로 파견된 이듬해 폐속하였으나, 이동녕은 신민회, 청년학우회, 교육단,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의 설립에 관여하면서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지속했다.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이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가자 더 이상 국내에서 민족교육을 할 수 없게 된 이동녕은 다시 만주로 가서 국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그는 요녕성 삼원보로 이주하여 우리 민족의 자치기관인

임시 정부를 이끈

큰 어른, 이동녕

이동녕

1869.10.06.~1940.03.13.

충청남도 천안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경학사와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또 동포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권업회를 조직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광복군정부도 수립하였다. 신문 발간을 통해 동포들에게 독립사상도 고취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만주와 러시아에서의 독립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동녕은 동포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며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1919년 2월 1일 대중교 조직을 중심으로 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됐다. 우리 민족 최초의 독립선언서였다.

“

국민본령(國民本領)을 자각한 독립임을 기억할 것이며,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자립인 것을 명심할 것이며, 황천의 명령을 크게 받들어
 일절(一切) 사망(邪網)에서 해탈하는 건국인 것을 확신하여,
 육탄혈전(肉彈血戰)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이다.

”

독립선언서 발표를 계기로 중국, 러시아 등지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을 하나로 모아 통합적인 독립투쟁을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상하이 임시정부의 시작이었다. 이동녕은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으로 선출되어 임시정부의 국호, 헌법, 관제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이승만 대신 국무총리에도 취임하였다. 이후로도 내무총장, 국무총리, 군무총장, 대통령 직권대행, 의정원 의장, 국무위원회 주석, 법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임시정부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 임시정부의 내분도 훌륭히 수습하였다.

김구와 함께 한국독립당을 조직, 이사장으로도 추대되었으며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후원하기도 했다.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될 무렵 이동녕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충칭으로 탈출, 임시정부의 4번째 주석이 되었다. 이때 이동녕의 나이 71세. 그는 일흔의 나이에도 굴하지 않고 임시정부를 이끌었으나 이듬해 폐렴으로 눈을 감았다. 이동녕의 장례는 임시정부 최초의 국장으로 거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방 후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여 이동녕의 공을 기렸다.

이동녕은 1869년 충청남도 목천군(현재 천안시)에서 태어났다. 18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구국 운동에 참여하여 교육을 통한 계몽과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일제의 탄압으로 활동이 어려워지자 만주로 옮겨 교육사업을 계속하였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 양성에도 손을 뻗쳤고, 3·1운동 이후에는 초대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1940년에 사망하고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李 東 寧

독립을 위한 투쟁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의열투쟁 하면 흔히 혈기 왕성한 청년의 활약을 떠올린다. 의열투쟁의 주인공이 대부분 청년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독립을 바라는 마음에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독립을 위한 투쟁에도 남녀노소가 따로 있지 않았다. 강우규와 남자현, 그들은 환갑이 넘는 나이에 식민권력을 향해 의열투쟁을 감행한 노인이었다.



독립투쟁에 나이는 필요 없다

한반도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던 1919년 3월 26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독립운동 단체가 탄생했다. ‘살날이 많지 않기에 더욱 독립이 간절했던’ 노인들이 60세의 김치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한국민노인동맹단(이하 노인동맹단)을 만들었다. 노인동맹단은 46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을 두었을 뿐 회원 자격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3·1운동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갈 무렵 노인동맹단은 만세시위와 외교투쟁을 벌였다. 먼저 1919년 5월 경성에 들어와 만세시위를 감행했다. 노인동맹단은 독립운동가 이동휘의 아버지인 이승교를 비롯한 7명을 경성으로 파견했다. 그들은 일본에 보내는 문서 2통, 취지서 수백 매를 들고 경성에 들어와 5월 31일 오전 11시 종로 보신각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연설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이승교, 정치운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추방당했고 안태순, 윤여옥, 차대유 등은 실형을 선고받고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다. 한편, 노인동맹단은 1919년 6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강문백과 연병우를 보내 단장 김치보 외 20명이 연명한 독립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외교투쟁을 전개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자

노인동맹단은 만세시위와 외교투쟁과 함께 의열투쟁을 감행했다. 3·1운동으로 하세가와 총독이 물러나고 새로 총독이 부임한다는 소식에 그를 저격하기로 한 것이다. 64세의 강우규가 나서기로 했다.

강우규는 1855년생이다. 평안남도 덕천군 무릉면 제남리에서 태어났

다. 20대 말에 함경남도 흥원으로 이주해 잡화상을 경영했다. 이때 비록 나이는 18살이나 어렸지만 그가 믿고 따랐던 이동휘의 영향으로 영명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강우규는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하자 망명을 결심했다. 이듬해 봄, 북간도의 두도구로 이주한 후 만주와 연해주 등을 돌아다니다 1915년 연해주 하바롭스크에 정착했다. 1917년에는 다시 길림성 요하현으로 이주해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에 신흥동이라는 마을을 개척했다. 신흥동은 100여 호가 넘는 한인마을로 자리 잡으면서 독립군의 주요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된다. 강우규는 이곳에서 광동학교를 열어 교장으로 활동했다.

1919년 3월 4일 3·1운동 소식을 들은 강우규는 신흥동에서 400~500명을 모아 만세시위를 벌였다. 4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이승교 등 노인동맹단 간부들을 만났다. 강우규는 노인동맹단이 결성 직후 단원 모집을 위해 파견한 전단위원을 통해 노인동맹단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1919년 6월 14일 강우규는 수류탄 1개를 품고 에치고마루라는 일본 배를 타고 원산에 들어왔다. 강우규가 경성에 나타난 것은 8월 5일이었다. 그로부터 1주일 후인 8월 12일 사이토 마코토를 새로운 총독으로 임명한다는 발표가 났다. 그가 부임하는 날짜, 즉 거사일은 9월 2일이었다. 강우규는 신문에 난 사이토의 사진을 오려 얼굴을 익혔다. 8월 26일에는 남대문역 부근 여인숙으로 거처를 옮기고 역 주변을 답사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1919년 9월 2일 오후 5시, 사이토 총독 일행이 탄 기차가 남대문역에 도착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사이토가 마차를 타고 총독관저로 향하는 순간, 강우규는 총독의 가슴을 향해 힘껏 수류탄을 던졌다. 사이토는 비껴갔지만 폭탄의 위력에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으나 보름 후인 9월 17일 순사인 김태석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1920년 5월 27일 경성고등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그해 11월 29일 서대문감옥에서 65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다. 생을 마감하던 순간 강우규는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姜宇奎

01 대한국민노인동맹단 명부
02 강우규
03 강우규 의거 'LA Times' 삽화



05



04

“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

자신의 몸을 던져 청년에게 독립의 의지를 심어주고자 했던 노인 강우규, 그야말로 진정한 ‘청년’이었다.

언젠가 독립은 반드시 온다!

61세의 나이로 폭탄테러를 감행했던 남자현은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
만일 너의 생전에 독립을 보지 못하면 너의 자손에게 똑같은 유언을
하여 내가 남긴 돈을 독립 축하금으로 바치도록 하라.
”

언젠가 반드시 독립이 될 것이니, 자신의 몸은 비록 세상에 없지만 남겨 놓은 돈으로라도 독립을 함께 축하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긴 유언이다.

남자현은 1872년생으로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정리에서 유학자인 남정환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19살이 되던 해에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에 사는 김영주와 결혼했다. 하지만 남편은 을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김도현의진에 속해 싸우다 이듬해 전사했다. 이후 남자현은 유복자를 기르며 직접 길쌈과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다. 남자현은 40대 중반의 나이인 1917년 친인척들이 망명해 있는 만주로 건너갈 준비에 들어갔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남자현은 경성에 있었다. 이때 기독교인으로서 남대문교회를 중심으로 한 만세시위 계획에 참여했다. 그리고 아들 내외와 만주로 망명을 떠났다.

만주에서 남자현은 서로군정서와 통의부에 이어 정의부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주로 독립운동가를 후원하고 교육계몽에 힘쓰며 의열투쟁을 펼쳤다. 1926년 정의부 주도로 만든 조선혁명자후원회에는 발기인과 중앙위

원으로 참여했다. 1927년 안창호를 비롯한 300여 명의 독립운동가가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이 중 47명이 길림감옥에 갇혔을 때는 옥바라지를 하며 구명운동을 펼쳤다. 길림여자교육회 부흥을 위한 총회를 준비하고 사회를 보는 등 여성 교육과 계몽 활동에도 참여했다. 54세가 되던 1927년 4월에는 국내에 잠입해 경성에서 사이토 총독을 저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시도에 그치고 말았다. 1931년 10월 만주 지역 독립운동계의 최고 지도자 김동삼이 체포되어 하얼빈 주재 일본총영사관에 구금되었다. 남자현은 그의 친척으로 위장해 면회를 다니며 연락책 역할을 했다. 김동삼이 신의주로 호송될 때는 구출 작전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남자현은 환갑이 되던 해인 1932년에는 홀로 외교투쟁을 벌였다. 그 해 9월 일본의 만주 침략을 조사하기 위해 리튼을 단장으로 한 국제연맹조사단이 파견되었다. 남자현은 왼손 무명지 두 마디를 잘라 ‘한국독립원(韓國獨立願)’이라는 다섯 글자의 혈서를 써서 리튼조사단에 전달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이듬해에는 다시 의열투쟁을 계획했다. 만주에 파견된 일본 전권 대사인 무토 노부요시를 처단할 계획을 세웠다. 거사 예정일은 만주국 1주년 행사가 열리는 3월 1일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월 27일 무기를 전달 받고 행사장이 있는 신경으로 떠나려다 하얼빈 교외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하얼빈 일본총영사관 감옥에 갇힌 남자현은 단식 투쟁을 벌였다. 이로 인해 사경을 헤매게 되면서 결국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며칠 만인 8월 22일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남자현은 죽기 전 중국 돈 200원을 독립이 되면 축하금으로 내놓으라고 유언했다. 이 돈은 해방이 되고 1946년 3월 1일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 삼일절 기념식에서 김구와 이승만에게 전달되었다. 1933년 8월 22일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는 순간 ‘여결’이자 ‘전율할 노파’로 불리던 남자현은 마지막으로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니라’는 말을 남겼다.

07



06

04 강우규 의거지(현재 서울역 광장)
05 남자현
06 남자현의 임종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
07 당시 하얼빈 주재 일본총영사관 터
(현재 화원소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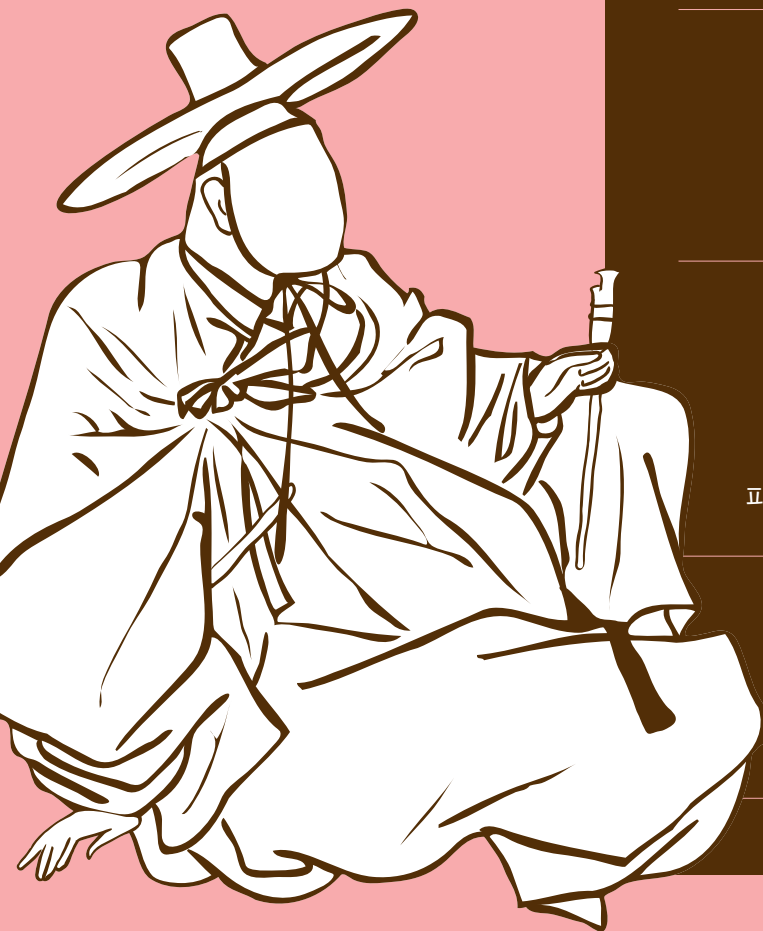
조선의 마지막 선비들

조선시대 선비는 많은 신분과 역할을 가졌다. 양반이었으며, 지식인이었고, 문인이자 정치가였다. 그리고 국권을 잃고 무너져가는 조선에서 그들은 독립운동가였다. 본래 선비는 성인의 글을 읽고 탐구하는 일을 제 책임으로 여겼지만,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어려운데 책에서 답을 찾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책 대신 독립선언문을 읽었으며 붓을 내려놓고 총칼을 들었다.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쉽지 않자 선비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해외로 망명하는 이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선비의 본분을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었다. 유학자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창숙은 “성인의 글을 읽고도 그가 시대를 구하려 한 뜻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짓 선비다”라고 말했다. 글을 읽는 이유 또한 시대를 구하기 위함이므로, 독립운동의 그것은 선비의 본질과 다르지 않았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들고 지혜로운 노인을 큰 어른으로 모시듯, 일제강점기에 큰 어른 역할을 했던 것은 조선의 마지막을 지킨 선비들이었다. 물론 그들 중 일부는 경술국치와 함께 자결로써 저항하기도 하였으나, 나라를 향한 올곧은 절개는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선비들의 파리장서운동

종교계를 중심으로 3·1운동이 일어나자 김창숙은 이에 참여하지 못한 유림의 현실을 통탄하며 유림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강화회의에 제출할 목적으로 한국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서한을 작성했다. 이것이 바로 선비들의 파리장서운동으로 장서는 임시정부를 거쳐 파리강화회의를 비롯해 국내외에 배포되었다.



숫자로 보는 파리장서운동

1919년

1919년 개최되는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고자 유림은 독립을 호소하는 서한을 작성하였다.

137명

서한에는 총 137명의 유림이 서명하였다.

2,674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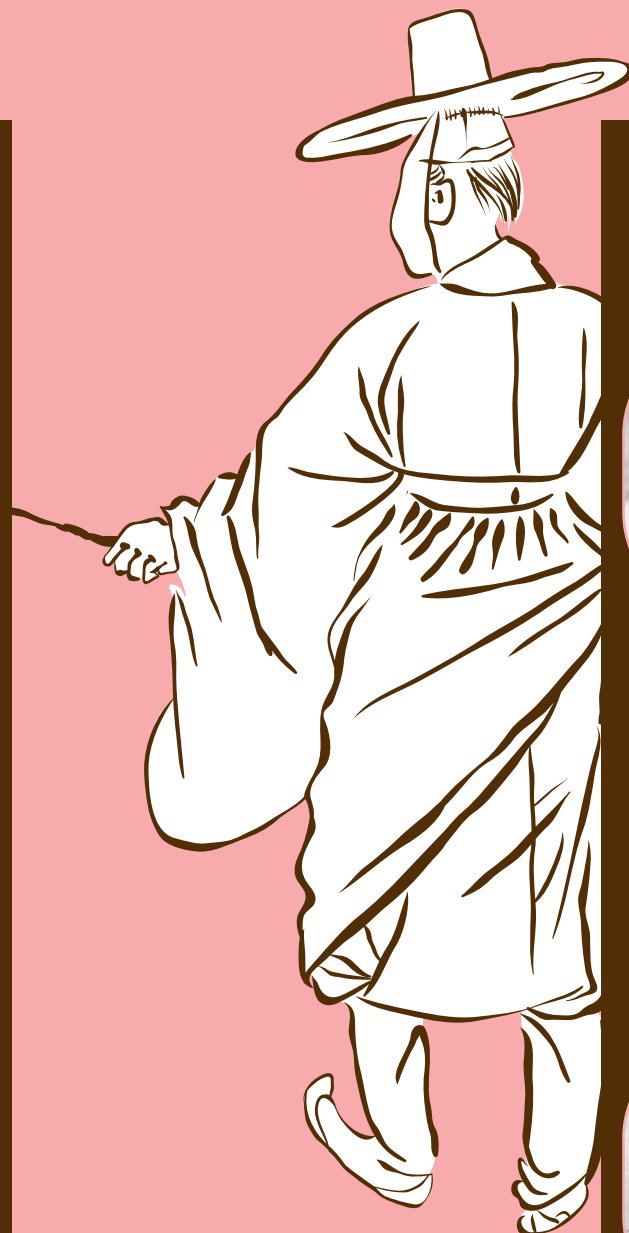
서한은 총 2,674자의 장문으로 작성되었다.

3,000부

한문(원본)판 3,000부와 더불어 영문판과 불어판을 번역 인쇄하여 파리강화회의 및 국내외에 배포하였다.

100주년

2019년 올해는 파리장서운동의 100주년을 맞는다.



독립운동가가 된 선비들



김창숙(1879~1962)

김창숙은 유림파리장서 운동을 주도하고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1924년 들어서는 이회영과 함께 독립군 양성에 힘썼고, 1927년에는 나석주를 투입해 식민수탈기관에 대한 폭탄 의거를 추진하였다. 이후 김구와 임시정부 재건에 힘쓰던 김창숙은 1927년 일경에 피체되어 고문에 시달리기도 했다.

황현(1855~1910)

황현은 한말 4대 시인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떨쳤다. 1888년 성균관 생원이 되었으나 과거장의 부조리를 목격하고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선비의 삶을 살았다.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자결한 이들을 애도하는 시「오애시」를 지었으며,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가 완전히 국권을 잃자「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조병준(1862~1931)

조병준은 본래 높은 학식과 성품을 가진 유학자였다. 그러나 1895년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하자 이에 분노하여 의병에 참여하였고, 경술국치 후에는 만주로 망명해 대한독립단을 조직했다. 1923년에는 내몽고 지역으로 이주, 농장과 학교를 설립하며 내몽고 지역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이근주(1860~1910)

이근주는 부친 밑에서 한학을 수학하다가 독학으로 학문을 일궈낸 선비였다. 그러나 을미사변과 일제의 단발령 공포를 겪으면서 의병 활동에 참여하였다. 홍주 의병의 활동을 기록한 「을미록」 등 항일사적을 편찬하였고, 1905년에는 을사늑약 반대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의 소식을 듣고 자결하였다.





어느 독립운동가의 일그러진 초상



독립운동가 곁에는 밀정이 있었다

2015년 <암살>이란 영화가 개봉했다. 독립운동 관련 영화를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일제강점기 친일파 암살단과 이들을 쫓는 작전이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을 놓지 않게 했고, 재미까지 더하여 1,200만 명이 관람했다. 특히 일제의 밀정 염석진이 반민족행위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뺨을 맞아 채귀고 뺨을 뺨낸 마지막 대사가 긴 여운을 남겼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여섯 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두 개지요? 여진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롭스크에서, 32년 이즈고 폭파사건 때, 그리고 심장 옆은 33년 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고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뺨았습시다! 그 젊은 청년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모릅시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항전의 걸음이었습시다, 재판장님!”

반성은커녕 본인이 억울하다고 호소한 염석진에게 방청객들은 욕을 하고 고무신을 던졌다. 염석진이 죽는 순간까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다. 한때는 독립군이었지만 죽음에 직면한 순간, 신념 따위를 저버리고 가장 초라한 자신의 초상과 맞닥뜨린 뒤 일제의

밀정이 되었다. 변절과 동시에 밀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계속 밀정 노릇을 해야만 했다.

사전적으로 밀정이란, ‘적국·가상적국·적대 집단 등에 들어가 몰래 또는 공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 활동 등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밀정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독립운동단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밀정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 그래서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내려고 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독립군이 일본군을 습격하기도 전에 계획이 탄로 나 실패하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일본 군정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르기 일쑤였다.

밀정은 어떻게 독립유공자가 되었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을 해, 독립운동과 관련된 영화나 방송이 특히 많이 제작, 방영되고 있다. 그런데 한 방송사가 이와 대척점에 있는 밀정에 주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내보면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일본과 중국 기밀문서를 분석하여 895명의 밀정 혐의자 실명을 공개한 것이다. 물론 이들 모두의 실체를 확인한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하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 당시 여러 개



1945년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았지만,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미완으로 남은 사건, 해결되지 못한 문제,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을 과거에 머문 역사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다루며, 오늘도 신문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독립운동 및 일제강점 이슈를 소개한다.



영화 <암살>에서 일제의 밀정으로 등장하는 염석진

의 가명을 썼고, 대부분의 밀정은 첩보 활동을 전개하여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방 이후에는 신분세탁을 했기 때문에 밀정이었는지 알 수 없었던 측면도 있다.

밀정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일제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이들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회유에 변절한 사람들도 있었다. 안중근 의사의 동지였던 우덕순, 김좌진 장군의 비서, 의열단장 김원봉의 부하, 봉오동전투의 주역인 홍범도의 수하 등이 대표적이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서도 존재했다. 상하이에 독립운동가보다 밀정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도 한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실제 밀정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인물도 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상당수가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서훈 심사가 부실하고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1960년대에 포상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1990년대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 그렇다고 관련 부처나 심사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의 책임이라 묻기도 어렵다. 자료가 발굴되지 않아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찾거나 밀정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하기에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제와 싸우다 목숨을 잃은 독립운동가는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1만 5,000여 명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독

립유공자 발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복 포상되거나 친일 경력자도 독립유공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자료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마냥 심사를 미룰 수도 없다. 정부는 좀 더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해야 하고 그만큼 검증도 철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어 독립유공자의 결격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 팀을 꾸려 독립유공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겠고, 친일 문제가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훈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자칫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문제점이 발견되었어도 판단을 미루거나 분명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비판은 더욱더 커질 게 자명하다.

독립운동가들이 바라던 자주독립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공훈은 지금을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고 역사적으로 보다 분명해야 한다. 이는 전체 독립유공자의 명예,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본군과 맞서 싸운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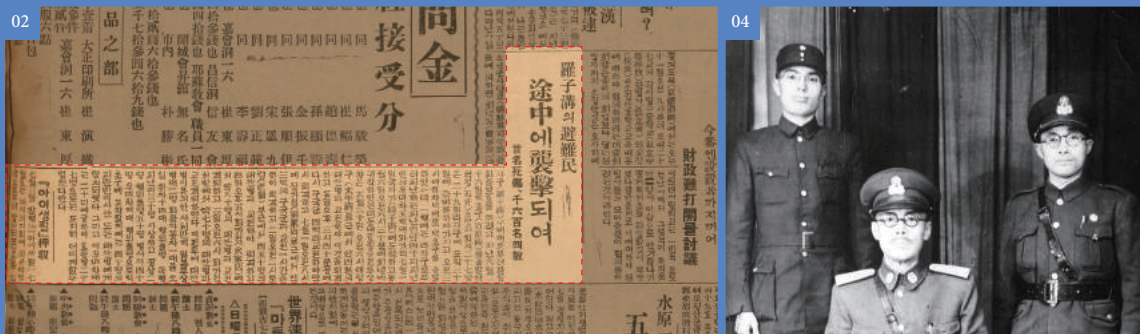
지청천(池青天)
1888.01.25. ~ 1957.01.15.
서울
건국훈장 대통령장(1962)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 및 광복회와 공동으로 지청천을 2019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지청천은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에 투신,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한국광복군 총사령을 역임하는 등 우리 독립군의 선봉에서 활약했다.



지청천



지청천

지복영

근대 군사기술을 습득하고

항일무장투쟁의 길에 들어서다

지청천은 1888년 1월 25일 서울 삼청동에서 태어났다. 관명은 석규(錫奎)이고 아명은 수봉(壽鳳)이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전통 한문을 배우다가 신식 학문을 배우기 위해 배재학당에 입학했고, 황성기독교청년회에 참여하면서 민족의식을 길렀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군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1908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1909년 9월 통감부의 압력으로 대한제국 군부가 폐지되고 학교도 문을 닫으면서 지청천은 일본 육군유년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 도중 1910년 8월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자 일본 육사 예비 과정에 있던 한인 유학생 사이에서는 학업을 지속하는 것을 둘러싼 동요가 일어났다. 지청천은 근대적 군사훈련을 습득한 뒤 일본군을 탈출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학업을 이어 나갔다.

일본 육군유년학교를 거쳐 1914년 5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위로 재임하던 그는 1919년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에 참여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국내로 돌아와 남만주로 망명하여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몸을 담았다. 이때 지청천은 일본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이름을 청천(靑天)으로 바꾸었으며, 성도 흔하지 않아 남의 눈에 띄기 쉬운 지씨(池氏)에서 어머니의 성을 따른 이씨(李氏)로 고쳤다.

총사령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선봉에 서다

남만주로 망명한 지청천은 서간도 유하현에 있는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으로 활약하였다. 신식 군사교육을 받은 교관이 부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입학 지원자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20년 일제가 만주 독립군을 탄압하면서 신흥무관학교가 폐쇄되자 지청천은 재학생을 주축으로 결성된 서로군정서 병력을 이끌고 러시아로 이동했다가 만주로 다시 돌아왔다. 정의부 군사위원장과 총사령 등을 겸하며 독립군을 이끌었고 1928년에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등 3부 통합운동에 노력하였다.

1930년에 한국독립군을 조직하고 총사령에 부임한 그는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자 중국항일의용군과 연대하여 일본 간도파견군과 만주 전역에서 전투를 펼쳤다. 그중 1933년 6월 중국항일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군 '간도임시파견대'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대전지령 전투는 '군수물자 노획'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거둔 최대 성과였다.

중국 관내로 활동 근거지를 옮긴 지청천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장 등을 맡았다. 1940년 9월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창설된 한국광복군 총사령으로 취임하였다. 지청천은 사병모집과 훈련, 선전과 정보 수집을 이끌었고 연합군과 협력하여 인면전구공대 파견, 독수리 작전 등을 추진하였다. 그의 장남 달수와 차녀 복영도 한국광복군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1947년 4월 환국한 그는 1948년 5월 총선거에서 전국 최다득표로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1948년 8월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초대 무임소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2대 국회의원, 국방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1957년 1월 세상을 떠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평생을 무장투쟁과 독립전쟁에 헌신한 지청천의 공로를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01 일본 육군사관학교 한국인 유학생 단체 사진

일본 육군유년학교를 거쳐 1912년 12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제26기생으로 입학하였다. 1914년 여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간의 견습사관 생활을 마치고 같은 해 12월 일본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02 대전지령 전투에 관한 조선군사령부 발표(『조선중앙일보』, 1933.07.09.)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제공)
대전지령 전투에서 간도 임시파병대는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으나 조선군 사령부는 부상 병대 2명, 화물 자동차 1대 소실 등으로 피해를 축소해 발표하였다

03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후 한중 대표들의 기념사진

1940년 9월 17일 충칭 자령빈관에서 열린 성립전례식에는 총사령부 직원을 비롯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의정원 의원, 한국독립당 인사들, 그리고 중국 각 기관을 대표하는 인사와 충칭 외교사절 및 신문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04 지청천 총사령과 왕계현, 김학규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과 총사령부 부관 왕계현(왼쪽), 제3지대장 김학규(오른쪽)의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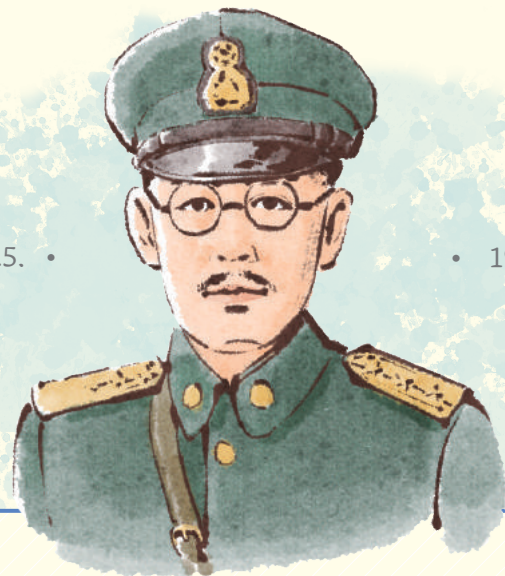


일본군과 맞서 싸운 한국광복군 총사령

지청천

1888.01.25. •

• 1957.01.15.



1

지청천은 5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황성기독교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민족의식에 눈뜨기 시작했고, 1908년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했다. 1909년 통감부의 압력으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가 폐교된 후 국비유학생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신식훈련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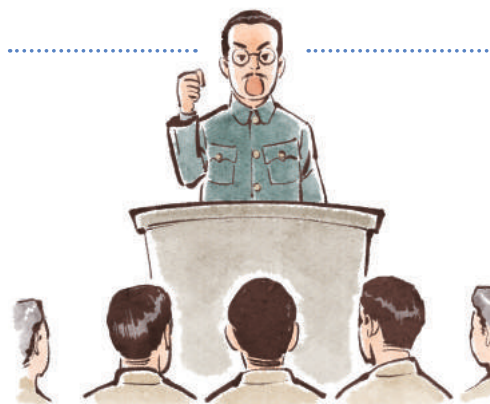
2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지청천도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나섰다. 일본군을 탈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대열에 합류하였고 이름도 석규에서 '지청천'으로 개명하며 독립운동가로서 일생일대 전환기를 맞는다.



3

이후 지청천은 신흥무관학교의 교성대장을 거쳐 교장으로 부임했다. 1911년 설립된 신흥무관학교는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일본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지청천의 합류는 학교에 큰 힘이 되었다.



4

독립군에 대한 일제의 탄압도 극심해졌다. 1920년 일제는 대규모 부대를 파견해 독립군 압살을 시도했다. 이때 신흥무관학교 출신을 주축으로 한 서로군정서를 이끌던 지청천은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합세해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고 보다 조직적으로 일본군과 싸웠다.



5

만주에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병력을 이끌고 러시아로 이동했던 그는 다시 만주로 돌아와 계속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그가 활약한 대전자령전투는 청산리전투와 함께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승리로 꼽힌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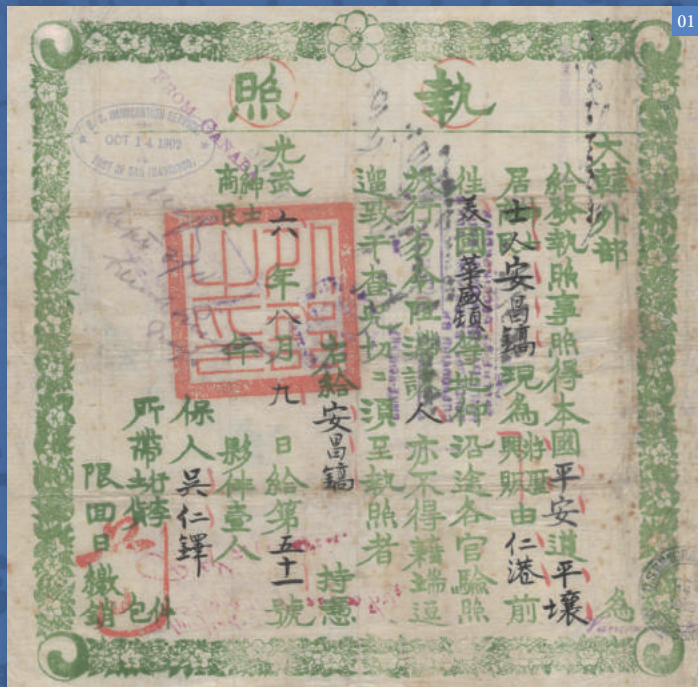
이후 지청천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장을 맡았고, 1940년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창설에 참여하였다. 지청천은 한국광복군 총사령을 맡아 연합군 활동, 대적선전, 압호문 해독 등 광복군의 다양한 활동을 이끌었다.





집조, 여권, 여행증서, 호조

백 년 전 한국인의 국경 넘나들기



01

안창호의 대한제국 집조

안창호는 미국 유학을 위해 1902년 9월 4일, 갓 결혼한 이혜련과 인천항을 떠났다. 이때 그가 가진 여권은 대한제국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외부(外部)에서 1902년 8월 9일 제51호로 발급한 ‘집조(執照)’였다. 자료01 집조는 원래 관청에서 발급하는 증명 서류를 통칭하는 일반 명사이지만, 한국에 여행권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여행권 역시 여행자의 신분을 관청에서 확인해 주는 증명서의 한 종류로서 집조라는 명칭을 사용한 듯하다.

집조에는 “본국 평안도 평양에 사는 사인(士人) 안창호가 인천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등지로 가려 한다”며, 안창호가 대한제국의 신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가 미국으로 여행하는 데 편의를 보아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다. 그런데 자료01에서 볼 수 있듯이 한문으로 쓰인 집조가 미국에서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집조의 뒷면에는 서울에 있던 주한 미국 총영사관에서 1902년 8월 23일 자로 집조의 소지자인 대한제국 신민 안창호에게 발행해 준 비자가 영문 타이프로 찍혀 있다. 같은 날 총영사관에서는 안창호의 집조를 영어로 번역하고, 제52호로 발급된 이혜련의 집조가 안창호와 동행하는 부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첨부한 문서도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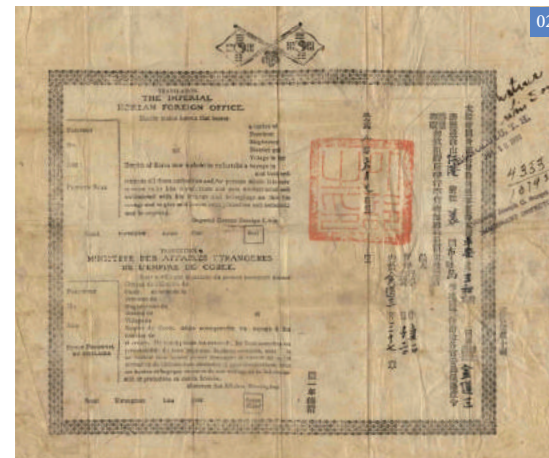
여권은 한 나라의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외국에 가려는 사람에게 그가 자국의 국민임을 증명하며 외국 정부에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이다. 외국을 여행하는 데 이러한 여행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각 국가 사이의 국경이 분명하게 그어지고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의 신민이었던 한국인들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증명해 줄 국가를 잃었을 때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며 국경을 넘었을까?

해 주었다. 안창호는 이러한 증명서를 갖고 일본에서 미국을 향해 태평양을 건넜다.

미국에 도착한 그의 집조에는 2개의 미국 이민국 인장이 찍혔다. 1902년 10월 7일 자로 밴쿠버의 미국 이민국에서 찍은 것과 1902년 10월 14일 자로 샌프란시스코항 미국 이민국에서 찍은 것이다. 이를 볼 때, 안창호는 홍콩-요코하마-밴쿠버 노선을 운행하던 캐나다 퍼시픽기선회사의 증기선을 타고 캐나다 밴쿠버를 거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갔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밴쿠버에는 미국 이민국 직원이 주재하며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가는 여행자들의 입국 심사를 했다. 이곳에서 ‘대한제국의 신민 안창호’로서 입국허가를 받은 후 다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종 입국허가를 받았던 것이다. 이 안창호의 집조는 1918년 8월 27일 멕시코 방문 후 미국으로 재입국 허가를 받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다.

김도삼의 하와이 이민 대한제국 집조

한국인들이 여권을 가지고 대규모로 해외로 나간 것은 1900년 초의 하와이 노동이민이었다. 1903년 1월 13일 첫 이민선 깬리호로부터 1905년 8월 8일 마지막 배 몽골리아호까지 11개의 증기선을 타고 64회에 걸쳐 총 7,415명의 이민자가 호놀룰루항에 도착했다. 자료02는 그 이민자 중 한 사람인 김도삼의 집조이다. 1904년



02

6월 7일 대한제국 외부에서 발행한 이 집조에는 오른쪽에 한문, 왼쪽에 영문과 불문이 있다. 1903년 11월 대한제국 외부에서는 그동안 한문으로만 인쇄했던 집조를 바꾸어 영어와 불어 번역본도 함께 인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조에는 평안도 삼화군에 사는 김도삼이 인천항을 통해 미국 하와이 등지로 가고자 하며 김도삼은 37세이고 처 1명과 아들 2명을 동반한다는 내용이 한문본에만 적혀있다. 그래도 “The Imperial Korean(대한제국)”이라는 영문을 통해서, 하와이의 이민국 담당자는 집조 소지자가 한국인(Korean)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 이민국의 입항 명단에는 한국인 김도삼(37세)과 김도삼 아들 1(5세), 김도삼 아들 2(1세), 김도삼 부인(29세)이 1904년 7월 11일 아메리카마루를 타고 호놀룰루항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집조에는 미국 이민국의 입국 확인 도장이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지만, 그들은 무사히 하와이의 땅을 밟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강희근의 사진신부 일본제국해외여권

김도삼은 부인과 자식을 동반한 가족이민이었으나, 대다수의 하와이 이민자는 독신 남자였다. 당시의 입항 명단에서 확인된 6,739명 중 총각은 2,143명, 홀아비가 1,554명, 결혼을 했으나 혼자 온 사람이 2,214명, 그리고 부인, 자녀와 같이 온 세대주가 363명이었다. 1908년 미국과 일본 간의 협정으로 이민자의 가족만 미국 정착이 허가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인들도 가족을 데려오거나 사진을 보고 결혼을 하는 ‘사진신부’를 맞이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약 800명의 사진신부가 하와이로 이민을 갔다.

01 안창호의 대한제국 집조(1902.08.09.)

02 김도삼의 하와이 이민 대한제국 집조(1904.06.07.)

1917년 경상남도 창원군에 사는 강형준의 차녀로 18세 1개월 된 강희근도 사진신부로 하와이로 가는 배를 탔다. 강희근이 갖고 있던 여권 **자료03**은 그를 부인으로 초청한 이명섭이 하와이 호놀룰루 일본 영사관에서 신청한 것으로 일본제국 외무대신의 명의로 발급되었다.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 후인 1906년부터 이미 여권 발행권을 갖지 못했고, 국권을 상실한 후 한국 내의 여권 발급업무는 일본 외무성을 대리하여 조선총독부가 담당했다. 강희근은 그가 살고 있던 경상남도의 경무부에서 여권을 받았다.

1917년 2월 7일에 발급된 여권은 ‘이민전용여권’으로 ‘이민(移民)’이라 쓰인 도장이 찍혀있으며 “결혼을 위해 미국령 하와이로 간다”고 적혀있다. 소지자의 인적사항은 주소와 가족관계, 연령 뿐 아니라 신장이 5척 2촌 2부이며 얼굴이 둥글고 눈이 작고 입이 작으며 눈썹이 얇고 머리카락이 짙다는 등 특히 얼굴의 특징이 자세하게 기록됐다. 소지자 본인의 이름은 자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여권에는 한자로 쓴 이름 아래에 도장이 찍혀있다. 1910년 10월의 「외국여권규칙」에 의하면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은 대서하게 하고 본인이 인감도장을 찍도록 규정했다. 여권의 다른 면에는 영문과



불문이 인쇄되어 있으며, 영문 인쇄 면에 일문으로 기록된 내용이 모두 영어로 옮겨져 있다.

미국 입국 조건을 갖춘 이 여권의 하단에는 1917년 4월 2일 자 호놀룰루 입국 허가 인장이 찍혀있다. 강희근은 비록 ‘일본제국 신민’으로 하와이에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로부터 2년 후인 1919년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대한독립운동금’으로 10달러의 의연금을 내며 고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김정극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행증서

1919년 3·1운동 후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외에 있는 한인들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여행권을 발급했다. **자료04**는 1920년 4월 22일 대한민국 외무총장 대리 차장 정인과의 이름으로 발행된 여행증서 제14호로, 김정극이 미국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이 25세, 주소 평안북도 용천군, 직업 학업 등의 내용과 함께 김정극의 사진이 붙어있다. 1915년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여권 사진은 소지자의 외모를 기술하는 대신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증서에는 영어와 불어, 러시아어 번역 면이 있지만, 영어 번역 면에 정인과의 영문 사인과 발행 날짜만 적혀 있을 뿐 김정극에 대한 정보는 빈칸으로 남아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각 나라에서 여행권제도가 강화되면서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이 여행증서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김정극은 5월에 프랑스를 거쳐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1920년에 학생들이 임시정부의 주선으로 중국에서 운영하던 유법검학회의 일원으로 중국 여권인 호조(護照)를 발급받아 상하이에 서 프랑스로 갔던 경로를 따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극은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상륙하여 1931년 4월 말까지 10여 년간 미국에 체류하며 독립운동 활동을 했다.

안창호의 중화민국 호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중국에서 활동하던 안창호는 1923년 7월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호조를 발급받아 1924년 말 미국으로 갔다. 1926년 5월



중국 상하이로 돌아온 안창호는 1929년 2월 1일 자로 상하이에 있는 중화민국 외교부 장쑤(江蘇) 지점에서 다시 호조를 발급받았다. **자료05** 필리핀을 방문하여 독립운동 기지 개척을 위한 이상촌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로서 미국은 식민지에서 도 여행권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 중화민국 호조는 총 24면으로 표지에 국명이 표시된 책자형 여권이다. 1920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여권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여권의 형식을 통일하기로 한 뒤, 각국의 여권은 낱장형에서 오늘날과 같은 책자형으로 바뀌었다. 1면에는 중화민국 외교부에서 안창호의 중국식 이름인 ‘晏彰昊(안창호)’에게 필리핀 여행을 위해 호조를 발급한다고 쓰여 있고, 2면에는 안창호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인적사항이 “나이 51세, 직업 교원, 출생지 장쑤, 국적 중화민국, 신장 5척 8촌”으로 기록되었다. 5면의 영어 번역 면에는 1면과 2면의 내용이 기입되어 있다.

안창호는 ‘중화민국 국민’의 신분으로 1929년 2월 9일 상하이에서 미국 배를 타고 필리핀의 마닐라 항에 도착하여 3월 30일까지 50여 일간 필리핀 각지를 시찰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1932년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거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체포된 안창호는 더



이상 중화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내로 압송되었다.

100년 전 한국인들이 사용했던 집조, 여권, 여행증서, 호조 등의 여행권에는 대한제국의 신민이었던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일본제국 신민, 중화민국 국민으로 자신의 신분을 바꾸며 국경을 넘어야 했던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그 속에는 그들이 언제나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도 담겨있다.

03 강희근의 사진신부 일본제국해외여권(1917.02.07.)
04 김정극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행증서(1920.04.22.)
05 안창호의 중화민국 호조(1929.02.01.)

※ 자료는 안수산(Susan Ahn Cuddy), 김성구(Ethan S. Kiehm), 강희근, 김신 남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연구와 전시, 교육을 위해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
김도형 「도산 안창호의 '여행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 행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2015.
김도형 「한국 근대 여행권(여권) 제도의 성립과 추이」 『한국근현대사연구』 77, 2016.
이덕희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중앙M&B, 2003.





1917년 박용만의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의 참가와 외교활동

II | 1910년대 재미 한인의 군사외교운동 ③



01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 10월, 미주한인사회는 뉴욕에서 약소민족의 대의를 모아 대전 종결 이후를 대비할 목적으로 최초의 국제회의인 소약국민동맹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고무되어 박용만을 대표로 보냈다. 박용만은 명연설로 식민지 한국인의 참상과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통치 실상을 알려 대회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나아가 미주 한인들은 한국독립을 위한 국제정치 변화에 대한 안목을 점차 넓혀 나갔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한반도는 긴 침묵과 함께 깊은 암흑에 빠졌다. 그런 가운데 1911년 신해혁명,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1917년 러시아혁명의 발발로 1910년대 국제사회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재빨리 대응한 쪽은 약소국 민족들이었다. 1917년 6월 뉴욕에서 소약국민동맹회(회장 F. C. Howe)를 결성한 것이다. 설립 목적은 전 세계 약소민족들을 위한 항구적인 의회를 설립해 장차 있을 국제회의 때 약소민족들의 발언권과 정당한 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그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소약국민동맹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재미 한인사회는 뉴욕에 소약국민동맹회가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American Leader』의 사설 「Small Nations Leagued Together」(1917. 06. 28.)로 알게 되었다.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이대위는 7월 7일 해당 잡지사에 소약국민동맹회에 대해 문의했으나 잘 모른다고 회신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에서

박용만을 대표로 선출

그러던 중에 하와이지방총회장 안현경이 1917년 10월 11일 자로 이대위에게 보낸 공문에서 귀 총회와 상의하지 못하고 박용만을 소약국민동맹회의 대표로 선정해 보내니 참조해 줄 것을 알렸다. 대회 소식을 기다려왔던 이대위는 이 공문을 받고 무척 난감했으나 이미 하와이에서 대표를 선정해 출발시켰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한인소년병학교와 대조선국민군단의 설립, 『신한민보』·『신한국보』·『국민보』의 주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한 박용만(1881~1928)을 소약국민동맹회의의 한인 대표로 천거한 사람은 이승만이었다. 평소 외교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중시했던 이승만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항일무장투쟁론을 주장해 온 박용만을 대표로 내세운 것은 무엇때문인가.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다. 1917년 당시 이승만은 대외 직책이 하와이지방총회의 서기 겸 재무이자 한인여학원 경영자였으나 실질적으로 하와이 한인사회를 지도하고 있었다. 이런 그가 박용만을 천거한 것은 1915년 내부 충돌로 소원했던 박용만 지지자들을 포용해 하와이 한인사회를 재결집시키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떤 이유로 박용만을 천거했든 간에 이번 일로 하와이 내 이승만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소약국민동맹회의의 대표 파견을 위해 이승만이 추진한 의연금 모금활동에 전 하와이 한인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당초 계획한 500달러를 훨씬 초과해 2,000여 달러를 모금하였다. 이는 이승만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큰 호응이었다. 박용만을 외교대표로 뽑으면서 이승만이나 이승만 지지자들로 구성된 하와이지방총회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박용만은 호놀룰루를 떠나 10월 24일 샌프란시스코, 10월 27일 뉴욕에 도착했다. 그는 이번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면밀하게 연설문을 작성하였고 하와이만의 대표가 아닌 해외 전체 200만 한인을 위한 대표자로 활동했다.

박용만의 명연설과 의의

박용만은 10월 29일 뉴욕 맥알핀 호텔에서 열린 개회식 첫날 다섯 번째로 등단해 연설했다. 그의 연설은 25개 참가국 대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만큼 명연설이었다. 그는 연설에서 한국인의 모든 행복과 자유를 무자비하게 빼앗아간 일본 정복자들의 진실을 고발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수렁에 빠진 민족의 구원

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것이고 일본이 자행한 불법적인 병합은 한국인에게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기회를 준 것으로 설명했다.

“일본은 옛 군주주의 체제의 국가를 전복해 주었는데 이것은 어쩌면 한국인들이 준비되었을 때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새 정부를 만들기 위한 미래의 일들을 애석하게도 일본이 일부 대신해 주었을 뿐이라는 심정을 전합니다.”

박용만은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일본은 매우 위험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한국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독립이 필요한 만큼 세계 약소민족들에게 정당한 생존권을 주지 않는다면 전 세계에 항구적인 평화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102년 전에 행한 그의 연설은 참가한 약소국 민족 대표들을 감동시켰다. 『The Survey』는 1917년 11월 10일 자 「Through Liberty to World Peace」란 기사에서 박용만의 연설에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한국인을 비롯해 아일랜드인, 핀란드인, 인도인, 리투아니아인, 러시아계 폴란드인의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번 대회는 완전히 그 목적에서 실패했을 것이라며 한국인 박용만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대회를 마친 박용만은 12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환영 행사 때 “우리가 이 동맹회에 참여함으로써 갑자기 한국의 독립을 얻어올 것이 아니로되, 어느 날이든지 한국이 독립하려면 실력은 있다 치더라도 외교, 군사의 활동을 진행함이 필요하다”고 연설했다.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한 그의 연설은 그동안 항일무장투쟁론에 주력했던 그간의 이력을 감안할 때 매우 진전된 의식 변화였다.

1910년대 들어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참가한 경험은 이후 재미 한인들에게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었고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신속히 대응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01

원산총파업과 대공황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장기 호황을 누렸다. 일제가 한국에서 문화정치를 펼치고 산업화를 추진했던 것도 그러한 조건 덕분이었다. 경제 호황의 중심에는 세계 자본주의 중심국가로 떠오른 미국이 있었다. 전쟁터였던 서유럽과 달리 빠르게 회복한 미국 경제는 1922년부터 상승 국면으로 들어갔다. 전쟁 중 얻은 이익으로 자본이 넘쳐나 서유럽과 중남미로 수출하고 내구 소비재 및 건축 산업과 내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1920년대 내내 실업률은 5% 이상을 유지했고, 면방직·석탄 등의 산업은 불황을 면치 못했다. 세계 농업도 과잉 생산으로 만성적 불황에 빠졌다. 넘쳐나는 자본은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 1920년대 말에는 이 모든 경제 상황이 대공황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한국 최초의 연대 파업, 원산총파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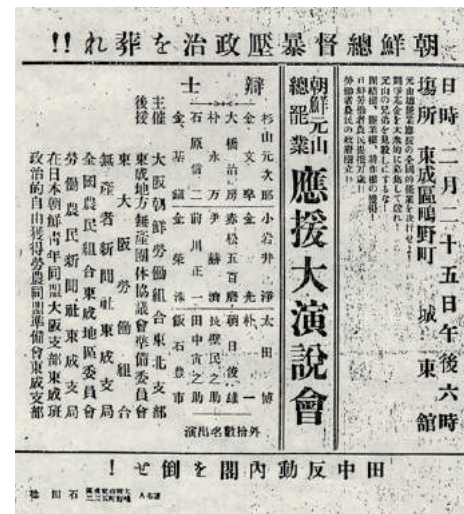
1920년대 세계 경제의 호황은 식민지 한국에서도 산업화를 촉진했다. 그러나 일제가 주도하는 산업화는 외국 자본과 한국인 노동자 사이에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 중첩된 갈등을 키울 뿐이었다. 1929년 1월, 원산 노동연합회(이하 원산노련) 소속 노동조합의 2,200여 명 노동자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22일에는 원산두량노동조합과 해록노동조합이, 24일에는 원산중사조합과 원산제면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고, 27일에는 양복직공조합, 28일에는 우차부조합과 인쇄직공조합이 잇달아 파업에 가담했다.

총파업의 발단은 1928년 가을 영국인 소유의 라

이징선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관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었다. 그때 120여 명의 노동자가 일본인 감독관의 파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사건 발생 후 회사 측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약속한 3개월이 지나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1929년 1월 14일 다시 파업이 일어났다. 이에 원산노련이 파업을 지원하자, 원산 지역 자본가들의 모임인 원산상업회의소가 부두 노동자 450명을 해고하고, 외지에서 대체 노동자를 모집하는 대응 조치에 나섰다. 게다가 일본 경찰은 원산노련 간부를 구속하고, 함흥 보병대에서 약 300여 명의 군인까지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원산총파업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연대 파업이었다. 그 이전에도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일어난 파업은 많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 문제에 개입해 한 지역 노동자들 전체가 연대 파업을 벌인 것은 원산이 처음이다. 개별 사업장 단위의 경제투쟁이 노동계급의 해방과 민족해방을 목표로 하는 정치투쟁으로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원산 총파업을 돕기 위한 나라 안팎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부산노우회, 수원노동조합 등 100여 개 단체가 지원품을 보내고, 일본에서는 동조 파업의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확산되었다.

02



1929-1931

국내

원산총파업

국외

뉴욕발 대공황

만주사변 발발

전 세계에 드리운 대공황의 검은 그림자

원산총파업은 전 세계적인 노동운동의 폭발로 이어지지 못했다. 세계 경제 자체가 폭발해 버렸기 때문이다. 원산총파업이 일어난 그해 1929년 10월 24일은 목요일이었다. 뉴욕 증시의 주가가 일순간 폭락하면서 전례 없는 대공황이 미국을 덮친 뒤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역사는 그날을 ‘검은 목요일’로 기억하고 있다. 1년 반이 지난 1931년 6월에는 뉴욕의 거대 은행 아메리칸유니언뱅크가 문을 닫았다. 은행 앞에는 수백 명의 예금자가 몰려들어 “내 돈 내놓아라!”며 아우성을 쳤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에 오른 미국은 1920년대에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제네럴 모터스 같은 미국 기업의 주가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사람들은 빔을 내서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주가가격은 실제 가치 이상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계점에 이르러 평 하고 터져버렸다.

주식에 거품이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 주식

01 원산총파업의 현장(1929)

02 원산총파업 응원 대연설회 전단

을 내놓자,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하고, 빚을 내 주식을 산 사람들은 파산자가 됐다. 이들이 소비할 여력을 잃어 상품이 팔리지 않자,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실업자의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켜 더 많은 공장이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대공황 발생 1년 만에 은행 1,300여 곳이 문을 닫아 예금자들은 알거지가 됐고, 은행 직원들조차 실업자가 됐다. 이어 수많은 공장이 도산해 실업률 16.3%, 실업자 수 800만 명으로 최악의 기록을 잇달아 갱신했다.

대공황의 여파는 미국에 투자한 유럽 기업에도 미쳐 연쇄 도산으로 실업자를 쏟아냈고, 유럽 열강의 영향 아래 있는 아시아·아프리카의 식민지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공황의 그림자는 이어 아시아의 일본과 그 식민지들에게도 드리웠다.

아시아 전쟁의 서막이 오르다, 만주사변

일본은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길을 전쟁에서 찾았다. 평텐 주둔 일본 관동군은 지난 9월 18일 만주 철도가 지나가는 평텐 외곽의 류타오후 철교를 몰래 폭파한 뒤, 이를 중국군 소행으로 몰아붙여 일제히 공습과 포격을 퍼부었다. 일본군이 평텐과 지린성의 주요 지역을 손에 넣자, 중국 민중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항일 집회를 개최하고, 일본 상품 배척 운동을 전개했다. 이른바 ‘만주사변’이 발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면서 1945년까지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을 15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참화의 시작이 되었다.

일본의 만주 침략은 만주 시장을 독점적으로 확보해 장차 대륙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를 만들려는 속셈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공황의 여파에 허덕이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는 이 같은 일본의 행위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만주를 무대로 활동해 온 한국과 중국의 항일운동 세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원산총파업을 비롯해 일본의 약탈 자본에 대한 대대적인 항거에 들어갔던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도 전쟁은 심각한 위기로 다가왔다. 일본은 1920년대의 문화 정치를 거두어들이고 식민지 탄압을 강화하는 데 만주사변을 이용했다. 대공황은 이렇게 한국에도 커다란 위기로 다가오고 있었다.

공황기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대공황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고 있었을까? 대공황의 중심지 미국에서는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노숙자가 늘어나 대도시 곳곳에 무료 급식소가 생겼다. 1931년 크리스마스에는 뉴욕시 한 급식소 앞에 수백 미터에 달하는 행렬이 땀 한 조각을 얻어먹기 위해 줄을 섰다. 1932년 7월에는 수도 워싱턴에 허름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느덧 모인 인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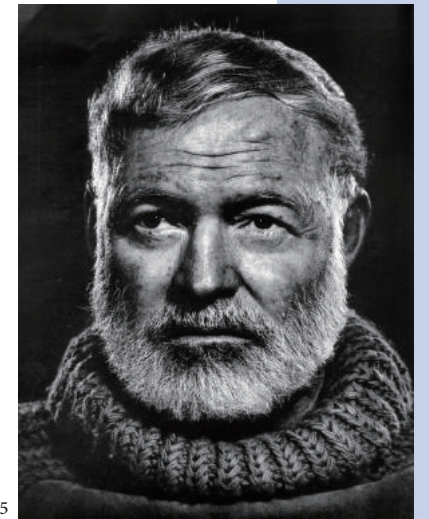
무려 2만 5,000여 명. 이들은 1924년에 퇴역한 군인들로 자신들을 ‘보너스 군대’라고 불렀다. 퇴역 당시 정부에서 이들에게 군 복무 기간만큼 사회에서 일했다면 벌었을 임금을 1945년까지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공황으로 살기 어려워진 퇴역 군인들은 보너스를 앞당겨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백악관으로 모여든 것이다. 그들이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노숙 투쟁에 들어가자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기로 했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폭동 진압 부대는 최루탄과 곤봉을 휘둘러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며 보너스 군대를 워싱턴에서 몰아냈다.

한편 대공황 여파로 남성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 신세가 되면서 여자들의 발언권이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동안 결혼한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남성 가장이 실직하자 전업주부였던 아내들이 생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흑인 여성은 가정부, 사무원, 의류 공장 노동자 같은 일자리를 남성들에 비해 쉽게 얻었다. 그에 따라 가정 안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대공황이 여권 신장에 기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당신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의 서문에서 여성 작가 스타인에게 “당신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다. 그 후 1920년대를 풍미했던 젊은 작가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게 되었다.

잃어버린 세대는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상처받고 가치관의 혼란을 느꼈다. 그리고 고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럽, 특히 파리를 전전하며 쾌락적인 삶을 탐닉했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의 주인공인 사진기자 제이크는 부상으로 성불구자가 된 뒤, 영국 간호사 브레트와 만족할 수 없는 사랑에 빠져 프랑스와 에스파냐를 떠돈다. 잃어버린 세대의 초상이었다.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1925), 더스 패서스의 『맨해튼역』(1925),



05

포크너의 『음향과 분노』(1929) 등은 1920년대 경제 호황 때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파멸해가는 미국인의 모습을 잃어버린 세대의 시선으로 그린 걸작이다.

잃어버린 세대는 대공황이라는 재난 앞에서 방향을 멈춰야 했다. 헤밍웨이는 1929년에 발표한 또 다른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자신이 길을 잃은 원인을 통찰하고 있다. 주인공 프레더릭 헨리는 국가를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부상과 스파이라는 누명만 뒤집어썼다. 그는 무기를 던져버리고 스위스로 도망간다. 그에게 환멸을 안겨준 것은 애국심, 명예 같은 헛된 가치를 유포해 개인의 삶을 유린하는 국가 체제였다. 헤밍웨이는 그러한 체제에 도전해 10여 년에 걸친 잃어버린 청산할 태세를 갖춘 것처럼 보였다. 잃어버린 세대가 호황기 사람들의 파멸을 경고해 왔다면, 대공황 세대는 그 파멸의 원인을 냉정한 시선으로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03



04



- 03 아메리칸유니언뱅크 앞에 줄을 선 시민들
- 04 일본이 제시한 류타오후 사건의 증거들. 일본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류타오후 사건을 위조했다
- 05 미국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가을 앞에서 노래하는 음유시인을 만나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음유시인,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다

방천시장과 신천대로가 맞닿은 골목길. 그곳에 가면 김광석의 생전 모습과 그의 노래를 보고 들을 수 있다. ‘김광석 거리’ 혹은 ‘김광석 길’이라 부르는 이곳의 정식명칭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다. 여기서 ‘그리기’란 ‘그린다’라는 의미와 ‘그리워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 김광석 거리가 조성된 이유는 김광석이 거리가 있는 대구 대봉동에서 태어나 다섯 살까지 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교편을 접고 사업차 상경하게 되자 그 역시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동물원’ 등에서 보컬을 지낸 뒤 솔로로 나선 그는 김민기의 도움으로 학전소극장에서 1,000회가 넘는 공연을 마치게 된다. 이후로 통기타 가수로서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자신의 노래 ‘서른 즈음에’처럼 짧고 외로웠다. 1996년 1월 6일, 33년의 삶을 스스



대구 방천시장과 맞닿은 좁은 골목길. 신천대로의 높다란 옹벽에 기대어 이어진 그 골목길에 우리나라 최초 대중가수의 이름을 딴 길이 있다. 가수 김광석을 주인공으로 한 길이다. 김광석은 서른세 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를 떠나보내지 않은 것 같다. 최소한 그 길에서만만큼은. 아니 어쩌면 그는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건 아닐까. 그의 노래와 목소리가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다.

01



02

는 음악으로 여겨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감성을 촉촉이 적시는 노랫말이고, 두 번째는 내 유외강과 같은 잔잔한 곡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무한 것 같지만 카랑카랑한 힘이 돋보이는 목소리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무대를 휘어잡는 조용한 카리스마다. 가을의 길목에 접어든 이맘때 대구 대봉동 방천시장 골목에는 그 노래들이 조용히 흘러나온다.

방천시장과 김광석의 운명적 만남

조선시대 전국 3대 시장은 평양장·강경장·서문장이고, 대구의 3대 시장은 서문·철성·방천시장이었다. 방천시장은 대구 도심을 남북으로 흐르는 신천의 수성교 옆에 자리한 재래시장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떡전, 싸전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싸전이란 쌀을 비롯한 곡물을 파는 가게를 뜻하는 대구 사투리다. 방천시장은 그때부터 1,000여 개의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루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원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중심축이 옮겨가자 시장은 낡아 쇠퇴해 급기야 존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그러던 2009년 무렵, 방천시장을 살리자는 민·관의 바람에 따라 방천시장 활성화 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시작으로 상주예술가와 프로그램 참여 작가가 선정됐고 2010년에 벽화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현재 350m 길이의 골목은 김광석의 노래와 이미지에서 모티브한 작품 70여 점과 야외공연장 등으로 채워졌다.

김광석의 노래가 물결처럼 흐르는 거리

신천을 따라 물 흐르듯 이어진 신천대로에 차량들의 질주가 시원하다. 그 옆 한갓진 옹벽에 기댄 김광석 거리 앞에 서면 직선으로 곧게 뻗은 골목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 골목 들머리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김광석 조형물 ‘사랑했지만’이 있다. 손영복 작가가 2010년에 제작한 설치작품이다. 거친 브론즈의 질감을 살린 이 작품은

로 마감한 것이다.

김광석의 노래를 즐겨 듣는 사람들에게겐 듣는 이유가 분명하다. 그는 슬픔을 노래하되 통속적이지 않고, 우울함을 노래하되 과장하지 않으며, 희망을 노래하되 상투적이지 않다. 많은 청춘이 일명 ‘아홉 살이’를 경험하며 성장한다. 그중 스물아홉과 서른 즈음 찾아오는 아홉 살이가 유난스럽지 않던가. 그들에게 노래 ‘서른 즈음’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등대 같은 곡이었다. 또 ‘이등병의 편지’는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춘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눈물의 편지였다. 하지만 그의 노래는 방황하는 청춘에게만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었다.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라며 힘을 북돋아 준 노래, ‘일어나’는 좌절과 낙심으로 점철된 이 세상 모든 중년들에게 재기를 꿈꾸게 했고, 지난날을 담담한 감성으로 회고하듯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는 추억을 먹고 사는 나이든 부모세대까지 끌어안았다.

그의 노래가 이처럼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



03

청춘의 고뇌를 토해내듯 노래하는 김광석의 모습과 잘 어울린다. 그래서인지 이 거리를 찾은 대부분의 사람이 사진 한 장쯤 찍고 가는 포토존이다. 그 뒤로 방천시장과 김광석에 대한 기록들이 이어진다.

난 책을 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가사 中

골목에 들어서면 활짝 웃는 김광석을 먼저 만난다. 미소년 같은 웃음 속에 굼은 주름들이 자글거린다. 골목에는 ‘사랑했지만’, ‘먼지가 되어’,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거리에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일어나’ 등 그의 노래가 물결처럼 흘러내린다. 감

성적이고 호소력 짙은 그의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기도 하고 텅 비게도 한다. 한 발 두 발 골목을 걷노라면 나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된다. 그 순간 노래의 감정에 온몸이 흠뻑 젖어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음악의 특별한 매력에 빠진 것이다.

박재근 작가는 벽화 제목과 소재를 김광석의 노래 제목에서 따왔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그것인데 모델은 방천시장 상인 부부라고 한다. 사람들은 실물 크기로 제작된 김광석 조형물과 사진 찍기를 즐긴다. 실제 김광석이 그랬듯 조형물도 흔쾌히 어깨를 내어주고 환하게 웃는다. 164cm의 작은 키 덕분에 누구와 어깨동무를 해도 어색하지 않다. 벽면 한켠에 자물쇠도 걸어놓았다. 사랑과 추억을 간직하고픈 이들이 마음을 다해 걸어 놓았으리라. 그 뒤로 야외공연장이 있다. 버스킹 공연과 김광석 추모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린다. ‘응팔이’ 세대를 위한 추억 소환 아이템들도 많다. 갤러리, 테트리스 등 쪼그려 앉아서 해야 제맛인 게

임들이 가게 앞에 줄 서듯 자리한다. 교련복과 김정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가게, 액세서리, 수공예품을 파는 가게들도 문전성시다. 포장마차 주인행세를 하는 김광석의 벽화도 있다. 황현호 작가의 ‘석이네 포차’가 그것이다. 손님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술안주를 건네는 표정이 인상적이다.

포장마차 벽화 옆에는 조선일보에 연재된 박광수 작가의 ‘광수생각’ 중 김광석을 주제로 한 작품을 그대로 벽화로 옮겼다. 사람들이 왜 김광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의 음악을 왜 듣고 부르는지 그 이유가 두 편의 만화에 잘 담겨 있다.

“형, 소주 안주로 제일 좋은 게 뭐 줄 알아요?”

“그건 말이에요. 김광석의 노래예요.

소주 안주로는 김광석 노래가 최고라고요.”

04



김광석 거리 끝자락에 ‘김광석 스토리하우스’가 있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메모리얼존, 내 거실, MD 스토어 등으로 꾸며져 있다. 자필 악보와 수첩 등 김광석의 삶과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품들이 1,000여 점에 이른다. 전시된 사진 중에는 코흘리개 유년 시절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던 중·고등학생 시절, 딸과 함께 찍은 사진 등 가족이 아니면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 팬이라면 꼭 한번 찾아볼 만하다. 평소 철학책을 즐겨 읽었던 그였기에 남겨진 메모에는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술한 상념들이 빼곡하게 남아 있다. 감수성 짙은 노랫말 역시 그 상념에서 나온 것이다. 입장료 2,000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03 손영복 작가의 작품 ‘사랑했지만’ 뒤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이어진다

04 노래하는 김광석 조형물

05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의 김광석 벽화

06 김광석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01



02

남촌을 걷다



조선시대에 한강의 지류인 청계천을 경계로 서울의 북쪽은 북촌, 남쪽은 남촌으로 불렸다. 한옥 마을로 보존되고 있는 북촌은 궁중의 일가붙이나 사대부들이 살던 곳이었다. 반면 남촌은 ‘딸깍발이’라고 불리던 몰락한 양반이나 가난한 선비들의 거주지였다.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이 살았던 동네가 남촌이다. 남촌은 현재 명동, 충무로, 필동, 회현동, 장충동 일대로 남산의 북쪽 기슭이다.

일제강점기 남촌의 풍경

남촌이 서울의 중심가로 부상한 데는 일본인의 영향이 컸다. 일본공사관이 서대문 청수관에 있다가 예장동 왜성대로 옮겨오면서 아랫동네 일본인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한국통감부·조선총독부 청사가 현재의 애니메이션센터 자리에 들어섰고 일본공사관은 통감관저로 바뀌었다. 현재의 남산 한옥마을은 일제 헌병사령부가 있던 자리였다. 일본인들이 남촌에 점점 더 많이 모여들자 일제는 한일병합 후 남촌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가로 정비와 전차 선로 건설도 남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관청도 들어섰다. 초기 경성부청은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있었다. 1926년 현재 서울시청 자리로 옮기고, 원래 있던 자리엔 1930년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점이 들어섰다. 이후 동화백화점을 거쳐 신세

계백화점에 이르고 있다. 그 옆에 위치한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은 1935년 조선저축은행 건물로 세워진 것이다. 맞은편에는 일제의 경제수탈을 위한 중앙은행인 조선은행 본점(현 화폐박물관)이 1912년 들어섰다. 지금 서울중앙우체국이 있는 자리에는 1915년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경성우편국이 있었다. 일제는 조선은행과 경성부청, 경성우편국 사이의 삼각형 광장을 ‘선전(鮮銀前·센긴마에) 광장’, 즉 조선은행 앞 광장이라고 부르며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과시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지명인 혼마치(本町, 즉 지금의 명동에는 상가와 술집, 음식점이 들어서 밤이면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했다.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성은 물론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거리를 활보했다. 소공동과 남대문로 쪽으로 식산은행(롯데백화점 자리), 조선상업은

행(옛 상업은행 본점 자리), 동양척식회사(옛 외환은행 본점 자리), 동일은행, 천일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문을 열었다. 1936년에는 극장 메이지자(明治座)가 명동에 문을 열었다. 메이지자는 시공관, 국립극장, 증권 빌딩을 거쳐 2009년 명동예술극장으로 복원됐다. 조지아 백화점(옛 미도파 백화점, 현 롯데백화점 영플라자)도 들어서 미쓰코시, 화신 등과 3대 백화점을 형성했다. 이렇게 남촌은 금융, 상업, 유통, 유흥,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남촌의 오늘을 걷다

서울시는 2017년 6월 남촌 회현동 일대를 북촌, 서촌과 같은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내려 찾아간 회현동에는 여기저기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다.

회현동에서는 ‘남촌 선비와 남산 옛길을 걷다’라는 안내판을 볼 수 있다. 남촌 선비란 조선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정광필(1462~1538)을 말하는데 우리은행 본점 건물 근처에 집터 표지와 정광필의 집 마당에 있었던 수령 500년의 은행나무가 남아 있다. 어느 날 꿈에 신선이 나타나 은행나무에 서대(犀帶, 정1품·중1품 관리가 차던 띠) 12개를 걸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하는데 정광필 가문에서는 실제로 정승 12명이 나왔다.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호 터널 진입로 근처에 청성군 김석주가 지은 재산루라는 누각이 있었고, 그 아래에 다산 정약용이 집을 옮겨와 살았다. 정약용의 집을 누산정사라고 했다. 일신교회 정문 앞에는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이항복의 집 앞에 있던 정자 쌍회정 표지가 있다. 쌍회정은 이항복이 심은 회나무 두 그루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소월로를 건너 대우재단 빌딩 앞에는 이항복과 돈독한 우정을 나뉜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조선 중기의 문신 이덕형의 집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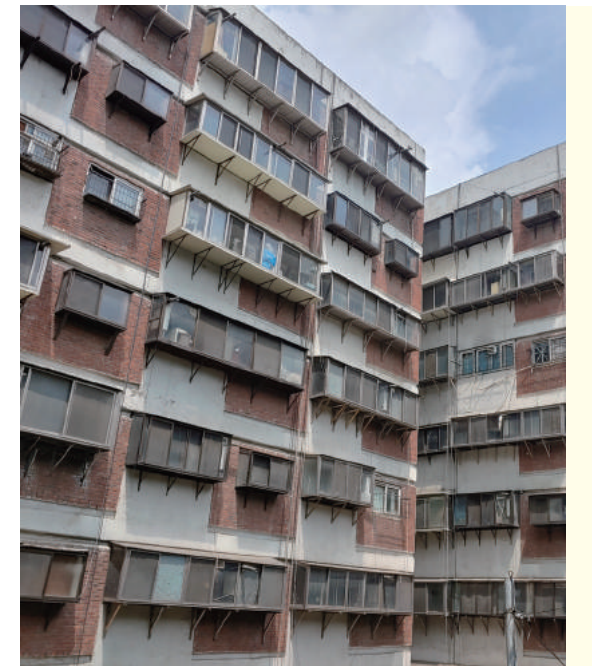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이들 역사 유적은 다 사라지고 흔적도 찾을 길이 없다. 지금의 회현동은 비탈길 골목에 작은 집과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은 사이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음식점이 자리하고 있을 뿐

이다. 이화동 벽화마을보다 사정이 낫긴 하지만 몹시 낡은 집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좋은 조건으로 3,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지는 않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문제도 복잡하다. 11평짜리 352가구인데 옛 시민아파트가 으레 그렇듯이 회현동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어졌다. 건물이 낡아 재건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강제수용으로 허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보존하겠다고 했어도 쉽지 않은 앓을 것이다. 회현동은 경사지인 데다 옛 건물이나 유적이 거의 없어 관광객을 끌어들이 유인 요소가 적다는 느낌이었다. 북촌, 서촌이나 익선동처럼 명품 거리로 만들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관광 인프라를 더 확충해야 한다.

01 1930년대의 센긴마에 광장(서울역사박물관 제공)
02 완공된 무렵의 명동 메이지자(서울역사박물관 제공)
03 회현 제2시민아파트

03





바로 알고 가르쳐서 실천하게 하는 힘이 교육이다



독립기념관은 매년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2018년 교원직무연수 참가자와 교육콘텐츠활용 우수교사를 대상으로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지 및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연수를 진행했다.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남북이 분단된 지 71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36년의 시간보다 많은 세월을 분단국가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독립운동을 가르칠 때 “왜, 가르쳐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항상 ‘통일된 국가’였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를 궁급해하지 않는 학생들과 역사를 외면하는 교육현

장을 볼 때면 열정은 사라지고 책임감은 무거워져 소통할 힘을 잃게 되곤 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가르치는 방법’이 항상 문제였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교사의 감정이 이입된 수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가 고민이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기념관의 「배움상자」는 교수법이 부족한 초등교사에게 가르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학생들에게는 재미

01



bb

발로 걸으며 가슴으로 느낀 독립운동을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분단시대를 접고 통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이란 사실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다시 ‘가르치는 방법’의 문제에 봉착했다.

99

02



있게 배울 수 있는 교재였다. 더불어 「배움상자」를 통해 독립기념관이 지원하는 답사에 함께 하게 된 것은 교사인 나에게도 배움의 기회였다.

직접 견고, 보고, 느끼며 배우는 독립운동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답사는 상하이에서 시작했다. 박은식, 노백린, 김민전, 안태국 그리고 신규식의 묘비가 있는 만국공묘에 갔다. 백암 박은식은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셨다.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박은식의 묘비로 향하는 동안 여러 감정을 느꼈다. 역사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74년생의 억울함, 유해가 송환되었던 1993년에 역사의식 없이 살고 있었던 나 자신에게 보내는 원망, 아직도 우리 독립운동가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이 현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 교사의 책임감 등이 뒤섞여 국화꽃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문제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 기다렸다는 듯 이념을 내세워 약산의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이때에 상하이 와이탄의 화려한 야경 속에 감춰진 의열단 단장 김원봉의 아픔을 떠올렸다. 오성륜, 김익상, 이종암이 다나가 기이치를 죽이지 못하고 와이탄의 다리에서 붙잡힐 때 멀리서 그들의 실패를 지켜보는 김

원봉의 마음은 어땠을까? 와이탄의 화려한 불빛이 남사스러웠다. 조국 독립을 위해 이념과 대상을 초월했던 김원봉의 독립운동이 정치인들의 잇속으로 더럽혀지는 것 같아 답사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에게 끊임없이 미안한 마음이 든다.

시커먼 미세먼지와 습한 바람을 뚫고 도착한 충칭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임시정부의 처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3개월이면 주변 도로와 건물이 모두 바뀐다는 중국의 개발 정책 속에서 허물어진 채로 외롭게 자리하고 있는 이동녕 선생님의 거주지를 보았을 때는 내가 역사책 속에 있는 것인지, 진짜 충칭의 그 장소에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지금 와 돌아보니 이동녕 선생님이 머물렀다는 그 집을 한 번 쓰다듬어 보고 올 걸,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족들이 지냈던 그 건물에 잠깐이라도 기대어 볼 걸 하는 후회가 든다. 먼지가 가득한 오르막길에서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생각했다. 독립운동가가 지킨 나라에서 편히 살고 있는 후손으로서 감사함과 죄송함을 담아 뜨거운 눈물이라도 흘리고 왔더라면, 충칭은 나에게 또 다르게 기억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다면 그날의 기억은 학생들에게 또 어떤 가르침



03

으로 돌려줄 수 있었을까? 반성이 가득했다.

충청에 그나마 온전히 남아있는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앞에서 한참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리 건너에서 있었다. 이렇게 쉽게 임시정부에 와도 되는 건가? 들어가도 될까?

여성독립운동가에 관한 서적과 자료가 부족하여 가르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곳은 정정화, 지복영, 남자현 등 여성독립운동가와 광복군, 조선의용군이 눈물을 머금고, 차오르는 숨을 삼키고, 조국을 그리워하며 의연하게 머물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였다. 청사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눈으로 청사를 보려 노력했다. 꼼꼼히 살피고 기록해서 그동안 구하기 힘들었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과 함께 독립운동사 안에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더 제대로 보려 노력했는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 국군의 뿌리가 한국광복군이 아닌 친일 매국의 주범 백선엽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얘기를 들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지 않았나요?” 하는 질

문을 하며 비웃었다. 충청의 임시정부 청사에서 가지고 온 열쇠고리와 엽서를 받기 위해 밤새워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퀴즈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적지 답사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나의 정신도 변화하고 가르치는 방법의 질도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역사를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하다

충청에서의 일정을 끝으로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 호주유학을 떠난다는 중국 유학생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미세먼지가 심하고 습한 날씨의 충청을 떠나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호주로 떠나니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생은 비행기가 충청을 벗어나는 동안 창밖의 뿌연 하늘을 슬픈 표정으로 바라봤다. 1분 전까지 있었던 고향이라고 해도 떠나는 것이 이리 그립고 슬픈데, 30년, 40년간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광복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 자신의 유해라도 고국에 묻히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 난민이 되어 고국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상하이로 향했던 이들의 마음

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발로 걸으며 가슴으로 느낀 독립운동을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분단시대를 접고 통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이란 사실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다시 ‘가르치는 방법’의 문제에 봉착했다. 그러나 답사 중 간담회에서 독립운동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동료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 중국 독립운동사적지 답사는 독립운동을 먼저 배운 교사로서, 독립운동을 책과 영상으로 접하는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하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과 교사에게 답사의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03 충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인근

04 충청 대한민국 임시정부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04



우리 역사 탐방! 나도 우리 역사를 지키고 나아갈래요

여지은 신암초등학교
관람감상문 공모대회 초등고학년부 금상

2018년 5월 25일에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으로 독립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 가족과 함께 독립기념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방문 때 충분히 다 둘러보지 못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이 막 지난 다음이라 의미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어서 독립기념관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독립기념관에 도착하여 부모님과 함께 태극열차를 타고 돌아보는데 규모가 커서 놀랐습니다.

제1전시관인 '겨레의뿌리'관에는 고조선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내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5월에 왔을 때는 전시물을 대충 보아 기억에 남지 않았는데, 다시 천천히 돌아보니 전시관 내에 백제의 무령왕릉을 재현해 놓았음을 알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덕여왕 시기에 만들어진 황룡사 9층 목탑을 보고 있자니, 그 옛날 신라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높이의 탑을 지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겨레의시련'관은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관한 전시가 이어졌습니다. 천연당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관에 처음 온 사람처럼 들떴습니다. 그리고 을사늑약 전시에서 을사오적과 이토 히로부미가 움직이면서 말을 하니, 제가 실제로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고 고구려, 발해의 역사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임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평화누리'관에 갔습니다. 독립과 관련된 문구들이 마음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도 바치셨는데, 분단된 나라를 갖게 되었으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통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시관 벽에는 자유, 평화, 희망, 미래, 화합, 통일, 기억, 행복의 단어들이 각국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물에 흐르듯 조성된 전시물은 그분들의 이름이 물을 따라 멀리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는 마음이 담

긴 것 같았습니다.

'나라지킴이'관에서는 독립군이 일제에 맞서 싸운 전투와 독립군 부대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일제강점기에 살았다면 과연 용감하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 물었습니다. 2전시관에서 본 고문 전시물이 생각났습니다. 고문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새나라세우기'관에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윤동주의 「서시」 등을 읽으며 당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임시정부 활동에 관한 설명을 읽으면서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가보고 싶단 생각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둘러보며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알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독립운동가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독립을 넘어 통일을 이루고, 행복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과거 독립운동가가 위대한 조상이 되었듯이 저 역시 후손에게 존경받는 조상으로 남고 싶습니다.



느티나무의 아련한 추억

고향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커다란 느티나무와 민규가 생각한다. 벌써 43년이 흐른 초등학교 시절의 로맨스지만 지금도 내 추억 속 민규는 동화 속 왕자님으로 남아 있다.

우리 마을은 전형적인 시골로,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고 40여 호의 집이 있었다. 마을사람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마을이었다. 우리는 마치 한 식구처럼 이웃의 밥숟가락 개수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경조사가 있는 날이면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다. 느티나무는 마을의 사랑방이요, 마을 소식을 날날이 전하는 소식통 역할을 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였고, 어른들은 그늘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푹푹 쉬곤 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모임을 하고 음식을 나누며 삶의 운치와 정을 쌓았다. 처녀·총각이 남몰래 눈도장을 찍기에도 부담 없고 편한 장소가 바로 느티나무 아래였다. 겨울이 되면 느티나무 옆의 둔덕에서 벚짚 넣은 비료부대를 깔고 앉아 미끄럼을 타기도 했다. 느티나무는 그야말로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인 셈이었다. 나 또한 느티나무 아래의 추억 하나를 가지고 있다. 민규와의 추억.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

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된 첫날, 민규가 전학을 왔다. 그 애는 서울에서 잘 사는 집의 외동아들이었는데, 우리 마을 제일 부자인 한씨네 외손자였다. 민규의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민규는 외가에 맡겨졌고, 그렇게 우리 마을 큰 어른이나 다름없는 그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살게 되었다. 선생님은 한동네 이웃이라고 민규를 내 짝궁으로 정해주셨다. 나는 민규와 짝궁이 된 순간부터 가슴이 쿵쿵거렸다. 새까맣고 제멋대로 생긴 시골 아이들 틈에서 하얀 피부를 가진 민규는 눈에 띄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제법 잘생겼다. 어린 시절에도 그 애는 왕자님처럼 멋있어 보였다. 게다가 짝궁인 나를 섬세하게 챙겨주기까지 했다. 맛있는 간식거리가 생기면 꼭 나를 주었고, 들에 놀러 가거나 학교를 오갈 때, 숙제할 때, 느티나무에서 숨바꼭질을 할 때에도 항상 같이 움직였으니 우리는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뭐든 함께했다. 우리는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움직였다. 혼자라도 있는 날이면 동네 어른들은 “민규는 어쩌고 혼자냐?” 하고 물었다. 민규와 나는 호기심이 많았다. 지금말로 하면 ‘코드’가 맞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겨울에 눈 쌓



인 느티나무 밑에서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고, 모자까지 씌워준 다음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내기를 했고 느티나무 옆에서 종일 지칠 줄 모르고 썰매를 탔다. 눈바닥 얼음 위에서 아버지께서 만들어준 썰매를 손이 아프도록 타기도 했다.

그런 민규가 6학년 여름방학 때 홀연히 이사를 갔다. 민규 엄마가 자리를 잡아 안정됐다고 했다. 짝궁을 잃는 일이 어린 가슴에도 어찌나 안타깝고 속상했는지, 사흘 밤낮을 울다 생병이 나서 학교도 가지 못했다.

내 유년의 뜨락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답고 가슴 시린 추억이 있는 우리 동네 느티나무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큰 길이나 버렸다. 그래도 가끔 느티나무, 고향, 풋사랑과 같은 단어가 생각나는 날이면 콧날이 시큰거린다. 내 어린 날의 추억들이 그림고 또 그림다. 지금은 소식도 모르는 옛 친구가 돼버렸지만, 민규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지금의 나처럼 제 외가에 있던 느티나무와 그 시절을 추억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규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 관련 자료기증식 및 자료공개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은 지난 8월 8일(목)에 독립기념관 도서열람실(자료부 내)에서 월남 이상재 선생 관련 자료기증식과 함께 자료공개 행사를 가졌다. 기증된 자료는 월남의 후손(기증자 이상구)이 소장하고 있던 이상재 선생 친필 문서류 및 사진류, 1927년 사회장 관련 문서류·사진류, 해방 이후 주요 독립운동가 추도사류, 1957년 묘소 이장 관련 사진류, 한산 이씨 고문서류, 동상 건립 관련 문서 및 사진류, 도서류 등 600여 점이다.

‘영원한 청년’, ‘한국의 거인’으로 상징되는 이상재는 대한제국기 개혁관료, 개화사상가, 교육자, 청년·시민운동가, 언론인 등으로 일제강점기 국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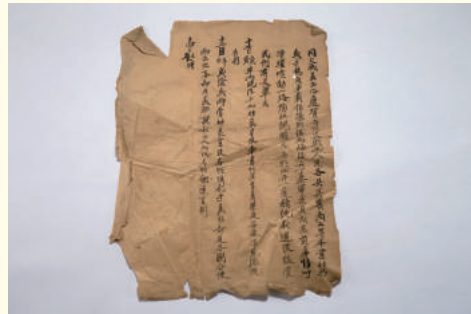
이번에 기증된 이상재의 논설 초고, 시문원고, 간찰 등 친필 관련 문서류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그 필적이 모두 선생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문·국한문·순 한글 등으로 기술된 논설문 초고와 문서 등은 매우 주목되는 자료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호구단자·명문·소지와 같은 집안 고문서류와 1927년 사회장 및 1957년 묘소 이전 등과 관련된 자료가 함께 기증되어 이상재 가문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복원하는 데도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번 기증식에서는 선생이 주미공사 서기관 시절 작성했던 일지로 보이는 문서 1점이 공개되었다. 이 자료에는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예정되었던 시기로 보이는 4일간의 활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박정양의 『미행일기』 내용과 일치한다. 공사인 죽천성사(竹泉星使)가 서기관 이하영(李夏榮)과 미국공사 알렌[安連]을 대동하여 미국 대통령[總統]을 알현하고 고별한 내용과 귀국을 앞두고 미국 외부와 각국 공사관 등에 명함(名帖)을 돌리며 작별 인사를 하게 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월남 이상재 자료기증식



월남 이상재가 주미공사 서기관 시절 작성한 일지



이상재는 서재필·윤치호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연설가로 활약하였고, 만민공동회의 유명한 사회자로 이름을 날렸다. 선생은 1898년 7월 고종에게 올바른 시무의 방안을 건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다. 또한 10월에는 입헌군주제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국정개혁안인 「헌의6조(獻議六條)」를 제출하여 황제의 동의를 얻기도 하였지만, 독립협회가 군주제를 철폐하고 공화제를 수립하려 한다는 보수 관료들의 모함으로 11월 4일 독립협회 간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당시 사회에 대한 월남의 이러한 인식과 개혁 의지를 「시무서(時務書)」, 「상정부서(上政府書)」, 「독립문건설소(獨立門建設疏)」 등의 기증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월남이 여러 시기에 걸쳐 직접 작성한 친필 문서류도 공개되었다. 먼저 전국순회강연회나 노동야학을 실시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한 월남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수안군립진명학교서(遂安郡郡立眞明學校序)」, 「○○학교서(○○學校序)」, 「기산학교취지서(麒山學校趣旨序)」 등의 문서가 있다.

또한 월남이 청년들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매우 강조하며 그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작성한 주요 논설인 「청년이여(青年이여)」, 「권고청년(勸告靑年)」, 「문명의 해석(文明의 解釋)」, 「청년의 자기(靑年의 自期)」, 「축신년(祝新年)」, 「정정단취지서(正正團 趣旨書)」 등의 친필 문서와 「조선청년과 교회(朝鮮靑年과 敎會)」, 순 한글로 어린이 교육 및 보이스카우트를 격려하는 문서도 있다.

현재 다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상재 선생의 자료도 있지만, 이번 독립기념관에 일괄 기증된 친필 문서류와 다수의 원본 자료들은 앞으로 그 가치를 더 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남의 독립에 대한 희망과 의지, 정신이 깃들어 있는 자료들은 분석과 보존처리 과정 등을 거쳐 전시·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격변의 시기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독립운동가이자 시민사회운동가로서 시대의 사표가 되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의 위대하고 진정한 삶의 모습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월남 이상재 친필 「청년이여」



월남 이상재 사회장(1927년) 관련 문서류 및 사진류



광복의 달 8월 독립기념관 행사 돌아보기



신병주 교수 초청 국민교양강좌 개최

2019.08.15.(목), 겨레누리관 컨벤션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8월 15일 오후 2시 3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저널 그날>의 신병주 교수의 국민교양강좌 ‘100년 전의 그날’을 개최하였다. 이날 강좌에서는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3·1운동의 의미와 유관순 열사의 저항과 헌신의 모습, 우당 이회영, 석주 이상룡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독립운동가들의 행적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광복 제74주년 경축문화행사 성황리 개최

2019.08.15.(목)~17(토), 독립기념관 경내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에 걸쳐 경축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광복절 경축식은 정부 행사로 진행되어 각계 인사가 모였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당일에만 3만여 명의 시민이 독립기념관을 찾았다.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경축대전이 열리는 가운데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를 그린 폰테뮤직의 오페라 <타오르는 불꽃>과 각종 체험행사가 방문객들에게 만세운동과 민족정신,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전했다.



독립기념관 제15회 학술상 시상식

2019.08.20.(화), 밝은누리관 강당

독립기념관은 매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를 장려·촉진하고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분야의 우수 저술 연구자에게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15회를 맞는 올해 학술상에는 국내와 일본 지역 항일운동 연구에 기여해온 전주대학교 변은진 연구교수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작은 『일제말 항일비밀결사운동 연구』이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환 수원대학교 교수는 변은진 교수의 저술이 그동안 불확실했던 1930년대~40년대 항일비밀결사운동의 실체를 해명함으로써 독립과 해방, 건국을 향한 조선 민중의 노력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 많은 공력을 들여 다양한 사례를 꼼꼼히 발굴했다”고 평했다.

※ 지난 호 6면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 김경천의 고향 ‘서울’을 ‘북청’으로 바로잡습니다.
- 본문 7번째 줄 ‘덕분에 김경천은 함께 유학한 다른 생도들이 육군유년학교를 거쳐 일본 육사 26기, 27기에 입학할 때 혼자 23기생으로 입교할 수 있었다.’는 ‘김경천은 1904년 황실유학생단 일원으로 유학하여 일본육군사관학교 23기생으로 입교했다’로 바로잡습니다.
- 아래에서 5번째 줄 ‘3년 후배인 지청천(이청천), 이응준과 함께 귀국하여 조국의 형편을 살폈다. 그리고 3·1운동의 현장을 보았다’는 ‘귀국하여 조국의 형편을 살폈다. 그리고 3·1운동의 현장을 보았다. 3년 후배인 지청천(이청천)은 5월 하순에 귀국했다.’로 바로잡습니다.



광복 74주년 개관 3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2019.08.13.(화),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

독립기념관은 2017년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3·1운동의 세계사적 영향과 그 의미를 살피기 위해 광복절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기획해왔다. 2019년 올해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사회는 3·1운동을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주제로 6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총독부, 일본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한국대표부 등 각 이해 당사자들이 3·1운동을 둘러싸고 어떤 외교전을 펼쳤는지, 이들 관계 속에서 프랑스,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3·1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나아가 미주 한인 사회에서 3·1운동을 어떻게 계승하고 전파했는지를 중심으로 언론 및 외교의 측면에서 3·1운동이 국제사회에 끼친 영향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일상 돋보기

월간 『독립기념관』이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일상 속 소중한 추억을 나눠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월간 『독립기념관』은 여러분의 친구이고 싶습니다.

참여안내

주 제 | 자유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2매 이내

※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E - mail | sunny@i815.or.kr

주 소 | (3123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1, 월간 『독립기념관』 담당자 앞

국군병사 휴가보상제도 안내

독립기념관은 국군병사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역사식 고취를 위해 국방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휴가 중 독립기념관을 방문 관람한 국군병사를 대상으로 휴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 상 | 휴가 중인 대한민국 국군병사

접 수 처 | 종합안내센터

(제2주차장 앞 또는 입구 바닥분수 옆)

지 참 물 | 휴가증 필수

※ 해군·공군은 외출증·외박증 가능

※ 반드시 본인 등록. 대리등록 적발 시 법적처벌

※ 군인 해설은 (화)~(금)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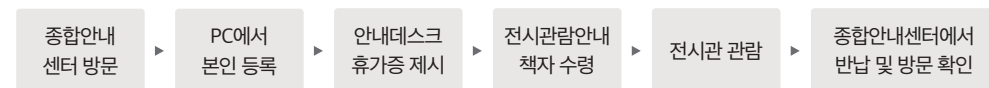
등록시간

절기/요일	하절기 (3~10월/화~일)	동절기 (11월~2월/화~일)
접수시간	09:30~15:50	09:30~14:50
관람시간	09:30~18:00	09:30~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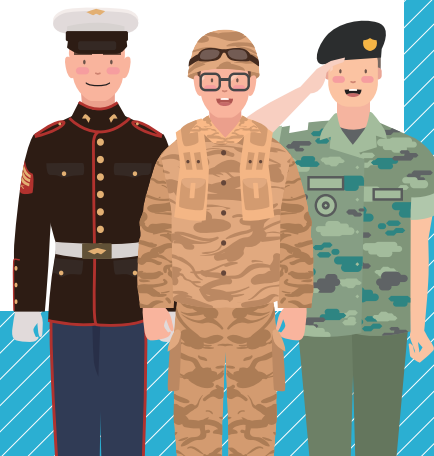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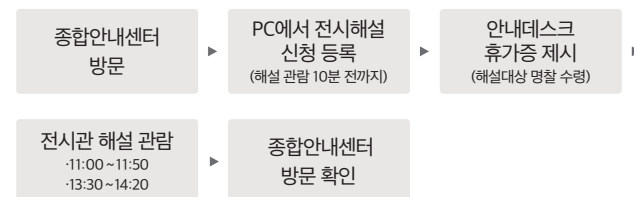
※ 정기휴관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

휴가프로그램 이용방법

선택 1 | 스탬프 찍기(2시간)



선택 2 | 전시해설 신청(1시간)



기술은 교육을 만나면 예술이 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코리아텍)가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스마트 러닝 팩토리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실천공학 기술자를 양성하여
대한민국의 더 밝은 100년을 책임집니다.

국내 대학 최대규모, 세계 최초 5G 기반
스마트 러닝 팩토리(Smart Learning Factory) 운영



높은 취업률!

취업률 80.2% (2019. 대학알리미 기준)
대기업 35.8%, 공공기관 19.5%



저렴한 등록금!

공학계열 238만원,
인문계열 167만원 (1학기 당)



풍부한 장학금!

1인당 연간 394만원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전국 4위)



짙짙한 기숙사!

기숙사 수용률 69.5% (신입생 100%)
2인실 기준 학기당 45만원

준비된 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KOREA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모집

- 접 수 : 2019.9.6(금) ~ 9.10(화)
- 접수처 : 유웨이(www.uwayapply.com)

이달의

주요 행사

2019. 09



전시

야외사진전 '우리가 떠올려 볼
독립운동사'

광복 74주년 특별기획전 '기미년
이후 백년'



학술

제358회 월례연구발표회



교육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독도학교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족캠프 '독도야 놀자'

토요역사체험(초등)



문화

제32회 독립기념관 관람감상문
공모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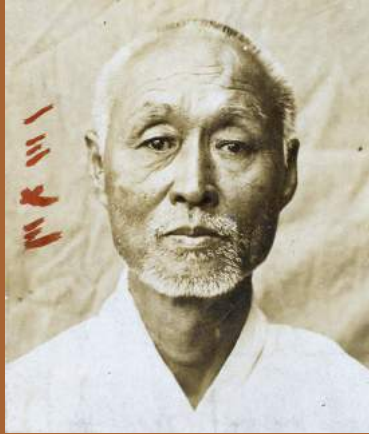
새싹이(어린이) 나라사랑 콘테스트

전통민속놀이마당

2019.09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제2차 세계대전 발발(1939)	강우규 의거(1919)	· 독도학교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 독도학교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 독도학교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8	9	10 	11 	12 	13	14
		· 독도학교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 독도학교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 전통민속놀이마당(-9/15) 김익상 의거(1921)	추석	박재혁 의거(1920)
15	16	17 	18 	19 	20 	21 
		· 독도학교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 독도학교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 독도학교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 가족캠프 '독도야 놀자'
		한국광복군 창설(1940)	일제의 만주 침략(1931)			
22	23	24 	25 	26 	27 	28 
		· 제358회 월례연구발표회 · 독도학교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 독도학교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 우리우리 태극기(초등)	· 토요역사체험(초등)
29	30	  · 새싹이(어린이) 나라사랑 콘테스트(~10/15) · 제32회 독립기념관 관람감상문 공모대회(~10/31) · 광복 74주년 특별기획전 '기미년 이후 백년'(~11/24) · 야외사진전 '우리가 떠올려 볼 독립운동사'(~12/31)				

강우규 의거(1919.09.02.)



강우규(1855~1920)

강우규는 노인들의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국민노인동맹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1919년 9월 2일, 환갑을 넘긴 노인 강우규는
남대문역(서울역)에 도착한 신임 총독을 향해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거행했다.
의거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백발의 독립운동가가 보여준 강인한
독립의지는 민족의 귀감이 되었다.

